

|특집|

성탄제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다 우리의 것이었는데 왜 몰랐을까요?
주일학교 학생 시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는 그대로이지만
교리교사에게 성탄은 조금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성탄제를 잘 치러야 한다는 의무감,
또 하나는 성탄 교리에 대한 걱정 때문이지요.

이번 특집은 '성탄 교리 교육 꾸러미' 로 꾸며 봤습니다.
성탄제를 직접 도와 드릴 수는 없으니
이렇게라도 선생님들의 부담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모든 선생님에게 성탄 시기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기를 기원합니다.

특집1

성탄 교안 완전 정복(초등부/중고등부용)

특집2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왕(초등부용)

특집3

교리 입맛을 돋우는 상큼한 게임 한 토막(초등부용)

특집4

성탄 골든벨(중고등부용)

성탄 교리 교육 꾸러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출처 : 서울대교구 초등부 2008 대림 · 성탄 교재 연수 자료집(3학년)

☞ 선생님만 보세요

마침내 성령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호의적 사랑(하나님의 '선의')의 대상인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이루게 하시는데, 겸손한 사람들, 예컨대 목자들, 동방 박사들, 시메온과 안나, 카나의 신랑 신부, 첫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분을 받아들인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725항

1. 성탄 대축일의 유래

아기 예수님은 정말로 12월 25일에 태어나셨을까? 4세기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12월 25일에 유다 지방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헤로데 1세 대왕이 통치하던 당시, 아마도 기원전 7~6년 사이에 태어나셨을 것으로 보고 있다.(헤로데는 기원전 37~4년까지 지배했다.) 12월 25일은 원래 로마 제국 시대에 태양신을 섬기던 축제일이었는데, 그리스도교가 로마에서 공인되면서 태양신 숭배 축제일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바뀌게 된다. 태양신은 가짜 신이지만, "세상의 빛"(요한 8, 12)이신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정의의 태양이시라는 믿음에서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내게 된 것이다.

탄생 장소 또한 베들레헴이라기보다는 나자렛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마태

오와 루카의 첫 부분에서만 언급되고, 특히 '신학적' 탄생지(예수는 다윗의 자손)로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다윗의 도시 : 마태 2, 4-6 / 요셉은 다윗 가문 : 루카 2, 4). 복음에서 예수는 흔히 '나자렛 사람'으로 통한다.

하지만 많은 가설들 속에 추정되고 있는 탄생일이나 탄생 장소의 정확도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문제다. 복음은 초대 그리스도교와 인간 예수님의 역사 기술이 아니라, 그리스도 신비의 가르침이요 신앙의 증언이란 점을 다시 깨달아야 한다. 즉 '예수는 구세주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서의 중심 사상이다.

2. 성탄 시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사람으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시기다. 예수님 탄생을 경축하는 성탄 대축일은 부활 대축일과 함께 그리스도교 양대 축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 성탄을 성탄 대축일 하루만 아니라 여러 날 계속 해서 경축하게 되었다.

성탄 시기는 예수 성탄 대축일 전야인 12월 24일 저녁부터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을 기념하는 주님 세례 축일까지며, 특별히 예수 성탄 대축일부터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까지 8일 동안은 하루하루 성탄 대축일처럼 지낸다고 해서 '성탄 8일 축제'라고 부른다. 이 축제 기간에는 첫 순교자 스테파노(12월 26일)와 사도 성 요한(12월 27일) 축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성탄 다음 첫 주일)을 기념한다.

성탄 시기에 지내는 또 다른 축일은 주님 공현 대축일이다. 1월 2일부터 1월 8일 사이의 주일에 지내는 주님 공현 대축일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마태 2, 1-12)을 기념하는 축일인데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공적으로 드러나심을 기념해 공현 대축일이라고 부른다.

3. 세계의 성탄 시기 풍습

- ① 영국 : 영국에서의 크리스마스 축제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봉건 제도 시대에 장원 영주의 저택에서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행사가 열렸다.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는 풍습도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 ② 독일 : 독일의 크리스마스 풍습 중 하나는 선물을 주는 일이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물건을 만들어 선사한다. 선물의 예로는 비누로 만든 장미, 종이로 만든 꽃 등이 있다.
- ③ 아일랜드 : 아일랜드 사람들은 크리스마スイ브 때 창문이 있는 곳마다 촛불을 켜 놓는

다. 그리고 창을 조금씩 열어 둔다. 이것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빌딩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촛불을 켜서 창을 열어 두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그것은 아기 예수를 낳기 위하여 마리아가 마구간을 찾아 헤매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침에 메리 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나 여인이 촛불을 끄도록 되어 있다.

- ④ 네덜란드 : 네덜란드에서는 산타 할아버지가 백마를 타고 온다는 말이 전해 내려온다. 따라서 백마의 먹이와 물을 준비해 두는 의미로 어린이들은 깨끗한 나막신에다 마른 풀, 홍당무 등을 넣어 물과 함께 창문 앞에 놓는다. 성탄절 아침에 미사가 끝나면 마을은 온통 축제에 휩싸인다. 과상하고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춤을 추면서 이 집, 저 집으로 다니며 캐럴을 불러 준다.
- ⑤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는 우리와 정반대의 기후를 갖는다. 즉 우리가 얼음이 꽁꽁 얼어 있는 영하의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 그곳에서는 땀이 뻘뻘 나는 영상 40°C의 무더운 여름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곳에서는 성탄절을 나비다드(Navidad)라고 부른다. 성탄 인사는 “헬리스 나비다드(Feliz Navidad)”라고 한다.
- ⑥ 멕시코 : 멕시코에는 포사다라고 불리는 축제가 있다. 포사다는 12월 16일에 시작되는데 순례자의 축제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12월 16일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손님을 기다린다. 포사다의 본래 의미는 쉬, 휴식이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그들이 기거할 장소를 찾기 위해 고생하였던 일들을 기억하는 축제인 것이다.
- ⑦ 콩고 : 기독교도가 아니더라도 성탄 행사는 즐긴다. 하지만 트리로 쓸 만한 전나무는 전혀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콩고 사람들은 어린 바나나 나무나 야자나무로 트리를 대신한다.

4. 주님 공현 대축일

‘주님 공현 대축일’은 2세기 초반 동방교회에서 유래된 것으로 구세주 예수의 탄생을 맞아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바치러 온 삼왕(三王)의 방문을 기념하는 날이다. 서방교회는 제1차 니체아 공의회(325년) 이후 예수 성탄 대축일과 함께 주님 공현 대축일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동방교회는 주님 공현 대축일을 성탄 대축일과 함께 지내고 있으나, 서방교회는 ‘성탄’ 때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공현’ 때 온 민족의 경배를 기념하고 있다.

이 축일은 1월 6일에 기념한다. 하지만 한국 교회처럼 사목적 편의에 따라 1월 2~8일 사이의 주일에 지내기도 한다. 서방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날 축제를 동방 박사의 축제로 지낸다. 그래서 구유를 꾸밀 때 구유의 아기 예수를 중심으로 마리아와 요셉, 목동들과 가축 등을

배치해 놓았다가 주님 공현 대축일이 되면 동방 박사들을 더해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예로부터 교회는 이 축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 세 가지의 중요한 신비를 기념함으로써 예수께서는 참하느님이시며 참사람이심을 세상에 알리고 있다.

별의 인도로 동방의 세 박사(삼왕)가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마태 2, 11).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이 예물들은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상징하고 있다(마태 2, 1-12 참고).

황금은 모든 금속 중에 가장 귀한 것이고 변치 않으며 찬란한 빛을 내기 때문에 왕에게 드렸던 선물 중 하나이다. 그들이 아기에게 황금을 드린 것은 예수님이 비록 아기지만 왕이라고 고백하는 행위였다.

유향은 신에게 바치는 제사에서 경신 행위로 드리는 것인데 예수께 이것을 드리는 것은 하느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이다.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것으로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것을 아기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왕이지만 죽을 수 있는 참사람임을 고백하는 행위다.

세 박사의 예물은 예수님께서 신인(神人)으로서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 주는 분이심을 간접적으로 고백한 것이다.

5. 이렇게 지도하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숨’과 ‘생명’을 분명히 구별해서 사용하십니다. 목숨을 나타낼 때는 ‘프쉬케’란 단어를 쓰고, 생명을 나타낼 때는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지요. 전자는 순수한 육체적인 생명 즉 목숨을 가리키고, 후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요한 12, 25 관련). 그러므로 목숨을 돌보는 것과 생명을 돌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돌보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교안의 목적은 아기 예수님과 그의 만남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느끼고 기뻐하자는 데에 있습니다. 앞서 「가톨릭 교회교리서」 725항에서 알려 주는 바대로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친교를 이루도록, 나아가 당신과 친교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는 교리교육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에 대한 상업화가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아이들이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주일학교 안에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기쁨을 얻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울 거리

1. 성탄 시기에 대해서 안다.
2.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통해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을 나눈다.

갖출 거리

성경, 성탄 카드(제품 혹은 만들기 재료), 필기도구, 포사다 따라잡기 준비물(씨리얼이나 해바라기 씨 등을 랩으로 싸서 풍선 안에 넣고 바람을 넣어 둔다.), 머리띠 만들기 준비물(색지, 색종이, 사인펜, 풀 등), 숟가락, 우유,

시작 기도

루카 2, 1-14

들어가기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얼마나 기다렸던 날인가요? 우리 친구들만큼이나 정말 간절하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멕시코의 '세스' 라는 친구예요. 우리 함께 세시를 만나 보아요.

풀어놓기

예화 / 크리스마스까지 아홉 밤

※서울대학교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연합회 홈페이지에 예화가 녹음된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세요.

(www.chota.or.kr→자료실→대림성탄연수→2008년→{3학년}크리스마스까지 아홉 밤.mp3)

#1

세스 안녕, 나는 세시라고 해.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멕시코이고, 이곳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기 아홉 밤 전부터 매일 이 집 저 집 돌아가면서 '포사다' 라는 축제가 열리게 돼.

#2

세스 포사다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포사다를 여는 집에 줄지어 들어간단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를 떠올리는 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야.

#3

세스 그리고 포사다 때는 '피나타' 가 꼭 필요해. 피나타는 말이야, 맛있는 것을 가득 채운 얇은 점토 인형을 말해. 점토가 얇은 상태에서 굳었기 때문에 쉽게 깨어진단다.

#4

세스 너희가 운동회 때 박 터뜨리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포사다 축제 때에 피나타를 깨뜨려. 그리고 나온 맛있는 과자와 사탕들을 먹는 거야.

#5

세스 올해는 우리 집에서 포사다가 열리게 되었어. 그래서 난 엄마·아빠와 함께 커다란 별모양의 피나타를 샀어. 그런데 난 울상이 되었어. 너무 예쁜 피나타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거든.

#6

살바도르 야, 세시! 넌 왜 나무 뒤에 숨어 있지? 같이 피나타를 깨뜨려야지.

세스 난 싫어. 제발. 흑흑. 내 피나타를 깨뜨리지 말아줘.

살바도르 세상에 피나타를 깨지 않는 포사다 축제가 어디있니?

#7

(쟁그랑, 환호성 지르는 어린이들 소리)

세스 결국 내 피나타는 깨지고 말았어. 난 그걸 보고 싶지 않아서 얼굴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 울고 있었어.

#8

살바도르 세시, 세시, 울지 마. 그만 울고 저길 좀 봐.

세스 살바도르 난 보고 싶지 않아.

살바도르 아니야 세시. 저길 좀 보라고. 얼른.

#9

별 세시아, 난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너의 별이란다. 사람들이 깨뜨린 건 단지 흙으로 만든 피나타일 뿐이야. 네 마음에 별처럼 환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깨어지지 않고 항상 네 곁에 계시단다.

-원작 : 『크리스마스까지 아홉 밤』 마리 홀 에츠

-멕시코에서 크리스마스 9일 전부터 하는 전통 축제는 무엇인가요?

-세스가 간절히 바란 것은 무엇이었나요?

-울던 세시가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췌시는 크리스마스에 정작 자신에게 와 계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피나타가 깨어진 것만 생각하며 속상해 했어요. 하지만 별의 이야기 덕분에 자신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일,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오 시어 늘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웃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 면 우리도 늘 가까이 함께하시는 하느님을 잊고 그 기쁨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 셧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혹시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께 서 탄생하신 기쁨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음을 함께 기뻐 할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크리스마스카드를 써 보도록 해요.

(미리 준비한 카드를 작성하도록 한다. 간단한 카드 만들기를 진행해도 좋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은 정말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다. 이토록 기쁜 날을 하루만 보내기엔 아쉬 워서 우리는 예수 성탄 대축일부터 주님 공현 대축일까지를 ‘성탄 시기’로 보내고 있어요. ‘주님 공현 대축일’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세상에 알려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즉, 동방 박사가 예수 님을 경배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할 때는 무엇을 선물했나요? (황금, 유향, 몰약)

황금은 모든 금속 중에 가장 귀한 것이고 변치 않으며 찬란한 빛을 내기 때문에 왕에게 드렸던 선물 중 하나예요. 예수님께 이것을 선물한 이유는 왕 중의 왕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유향은 신에게 바치 는 제사 때에 사용하던 것이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같다는 것을 고백하 는 의미입니다. 몰약은 당시에 시체에 바르던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 아가실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런 희생은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예요.

오늘 같이 기쁜 날, 우리도 췌시가 사는 멕시코에서 하는 포사다 축제를 즐겨 볼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는 할 수 없지만 포사다 축제의 피나타와 비슷한 풍선 터뜨리기를 할 거예요.

■ 포사다 따라잡기

- ① 교사는 씨리얼이나, 해바라기 씨 등 다양한 재료를 랩에 싸고, 이것을 풍선에 넣어 풍선 터뜨리기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 ② 포사다 축제 때에는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즐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축제 분위기를 내기 위해 간단한 재료로 머리띠를 만들어 모두 끼도록 한다.
- ③ 모둠을 나누어 두 명씩 짝을 지은 뒤, 풍선 터뜨리기 게임을 진행한다.
- ④ 풍선을 터뜨려 나온 과자들을 우유와 함께 섞어 먹으며, 축제 기분을 내도록 한다.

모으기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있는 힘센 왕의 모습이나 권력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장 누추한 자리에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 시는 건 아마 우리 친구들이 대림 시기 동안 그러했듯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예수님을 만나 기쁜 마음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모습일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은 피나타처럼 깨 지거나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언제나 예수 님과 기쁘게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집에 가서

내가 만든 크리스마스카드를 가족에게 전합니다

마침 기도

어서 가 경배하세(어린이 성가 104번)